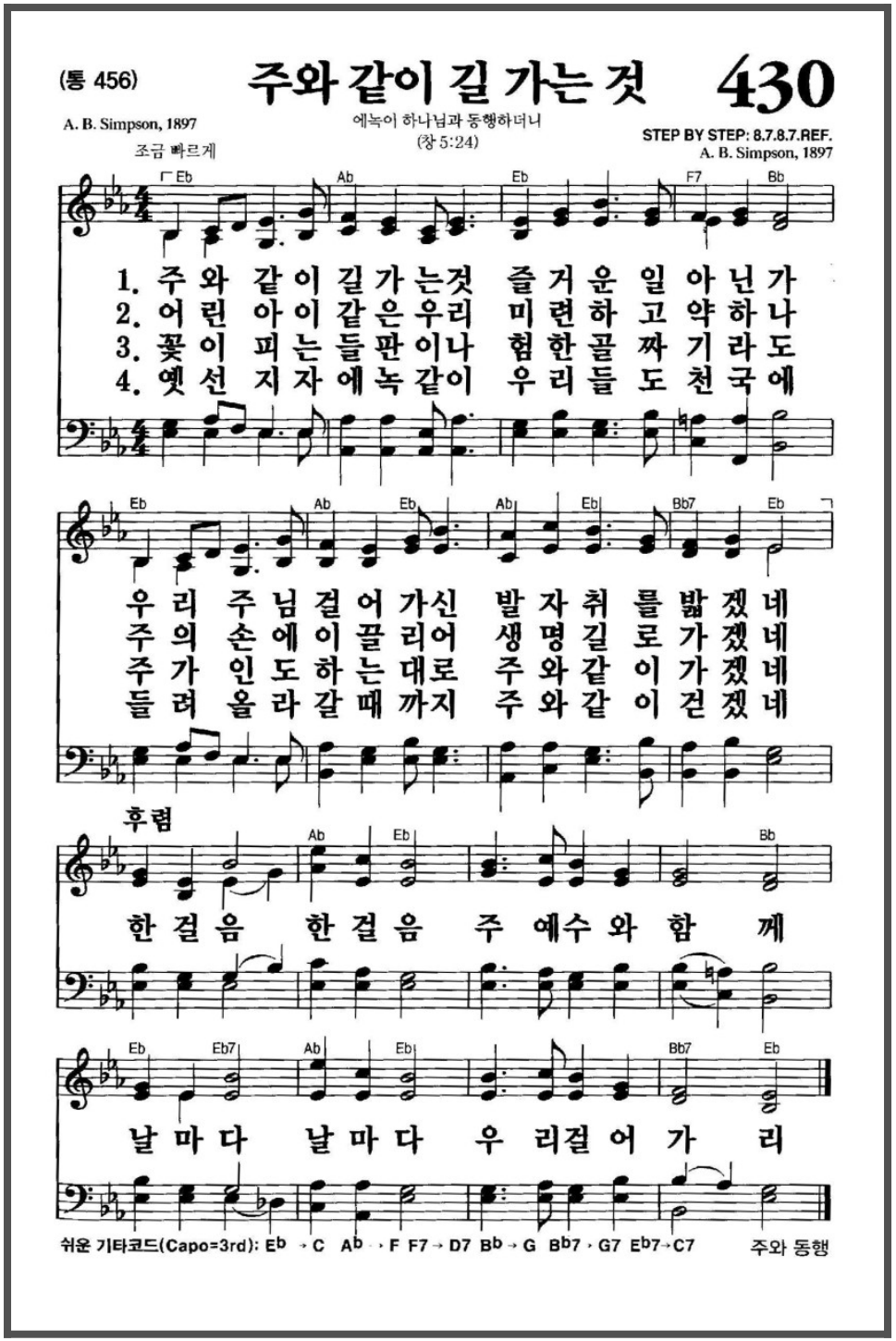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신앙고백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430장 ..... 다같이

기 도 ..... 가족 중에서 ..... 다같이

말씀나눔 ..... 에베소서 5장 4절 ..... 인도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찬 송 ..... 찬송가 369장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 에베소서 5:4 –

펜데믹 속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가을의 한 가운데 다다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추석명절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해 있다면 입을 열 때마다 마음속에 담긴 충만한 감사가 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조건 없는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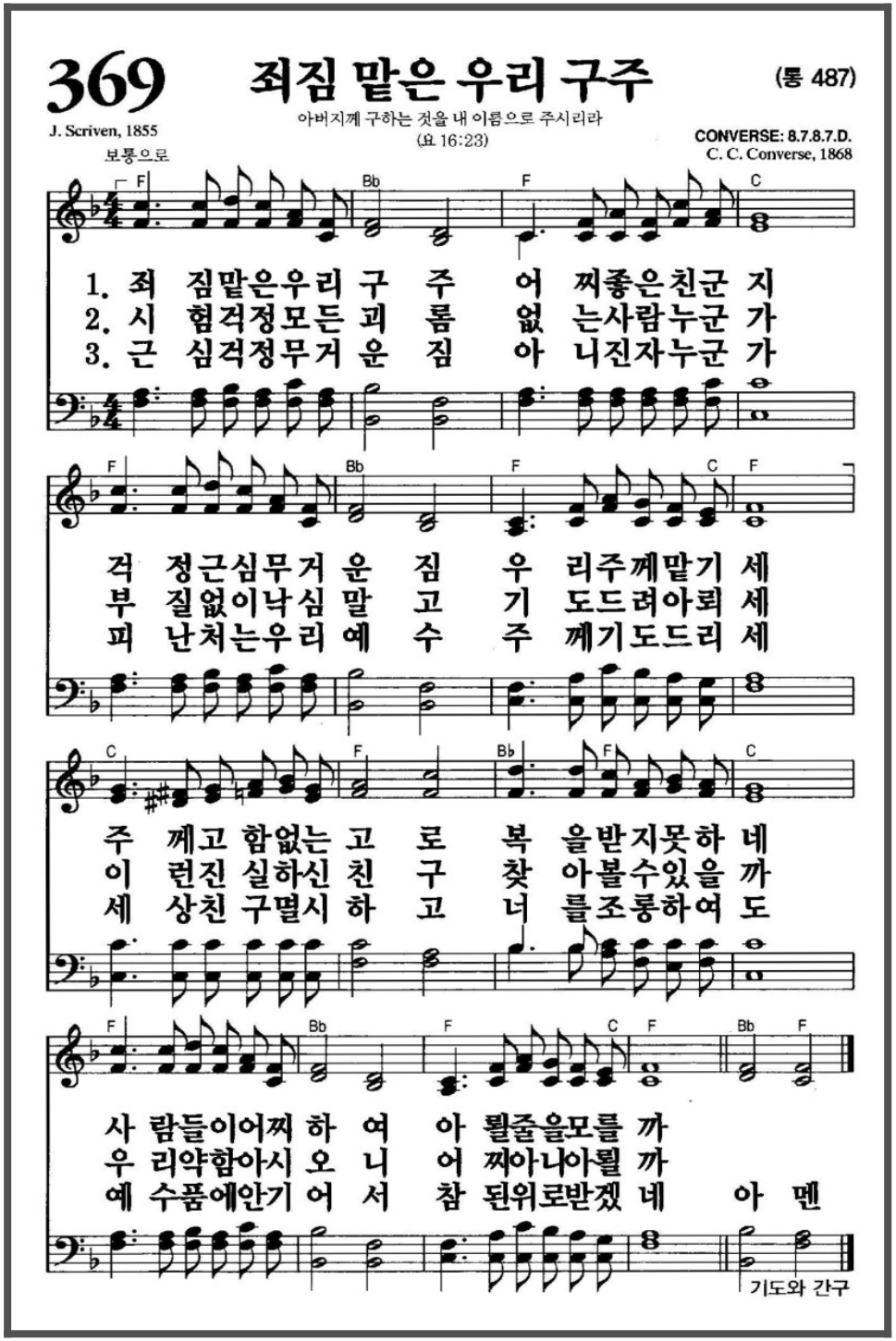
성경에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족이 우리 주변을 둘러쌀 때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이 내게 없어도, 심지어 건강이 없어도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아무 조건 없는 감사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2.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조건 없는 감사로 채워질 때 우리는 주변에 다른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대개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여호와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주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찬양.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찬양.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두 '오히려 감사'하는 온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 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